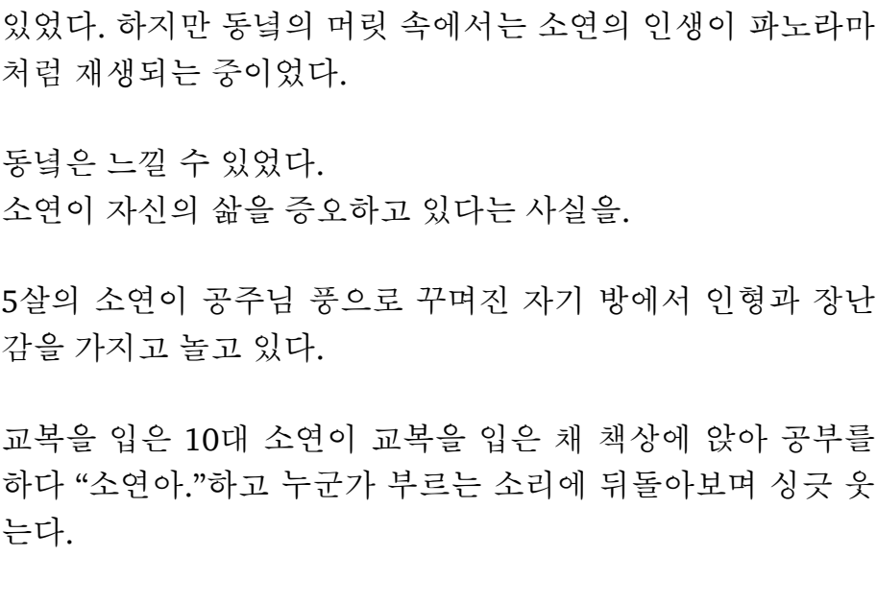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6

◆



오리엔티스 건물의 외곽에서, 동녘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동녘의 머릿 속에서는 소연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재생되는 중이었다.

동녘은 느낄 수 있었다.
소연이 자신의 삶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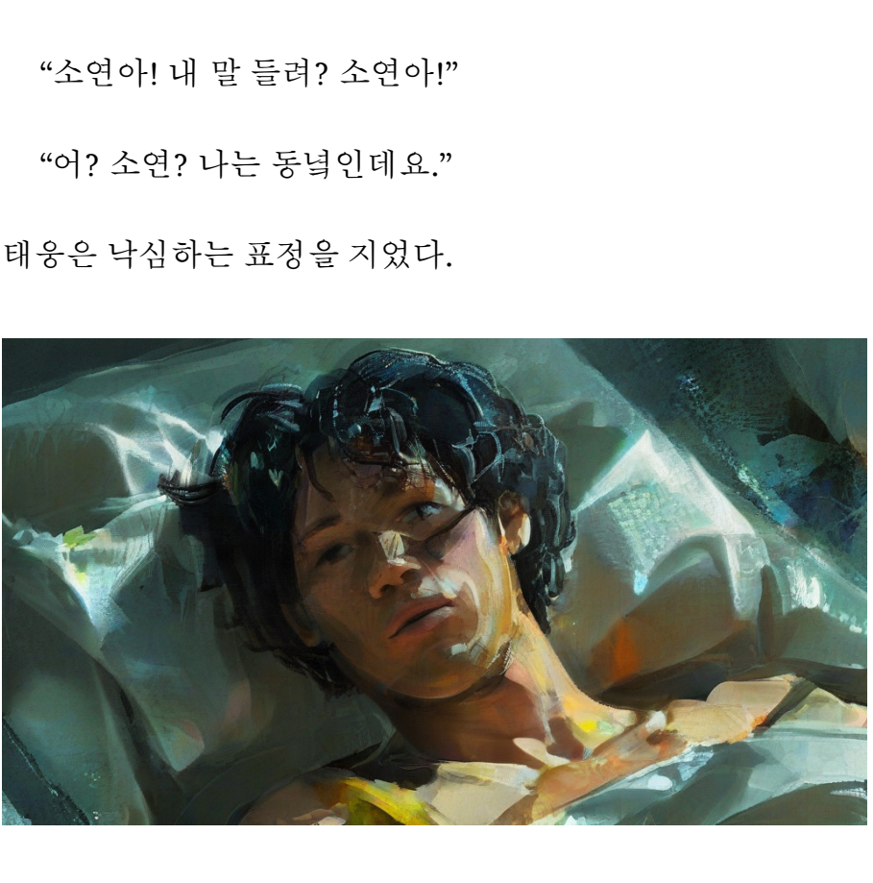
5살의 소연이 공주님 풍으로 꾸며진 자기 방에서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교복을 입은 10대 소연이 교복을 입은 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 "소연아."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며 싱긋 웃는다.

20대의 소연이 어떤 남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며 수줍게 첫 키스를 한다. 어느새 남자와 결혼한 소연이 신혼집에서 파란 옷을 입은 갓난아기를 안고 얼러준다.

30대가 된 소연이 신혼집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격하게 말싸움 한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아기가 울기 시작하고, 소연은 울부 짖는다.

어디선가 허망한 표정으로 울고 있던 소연은 결심한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중력에 몸을 맡기고 뛰어내린다.... 두개골이 박살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퍼진다.



다시, 동녘은 느낄 수 있었다.
소연에게 있어 유일한 위안은 삶에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란 걸.

소연이 중력에 몸을 맡기고 떨어졌던 곳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소연을 들쳐 업고 뛰어간다.
어느 실험실, 소연은 알 수 없는 이들에 둘러싸인 채 수술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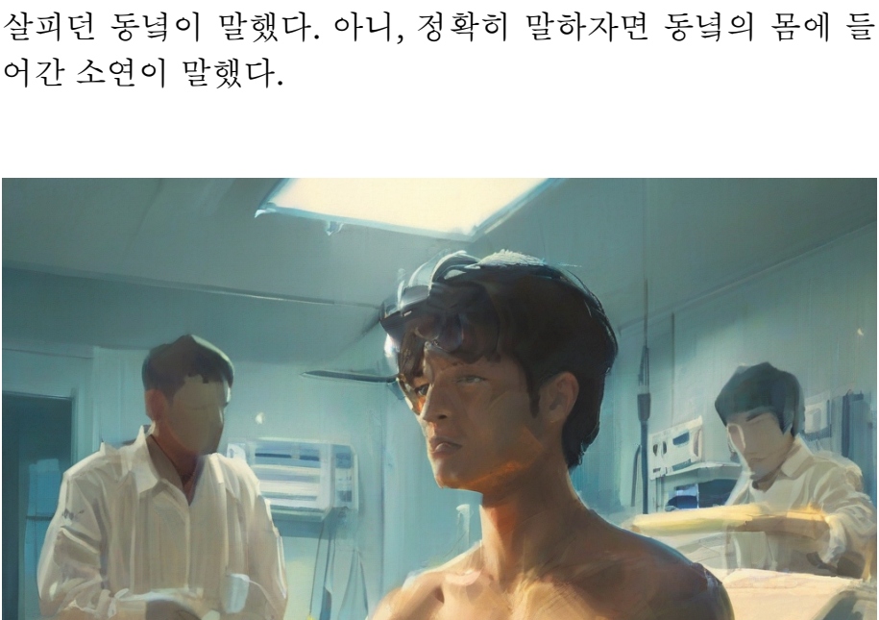
◆

동녘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바로 정면 천장의 조명과 자신이 누워있는 실험대가 보였다. 오리엔티스 실험실인가, 하고 누워 있자니, 태웅이 다급하게 말을 건넸다.

"소연아! 내 말 들려? 소연아!"

"어? 소연? 나는 동녘인데요."

태웅은 낙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니, 얘는 의식 망가지지 않고 듀얼 의식이 되어 있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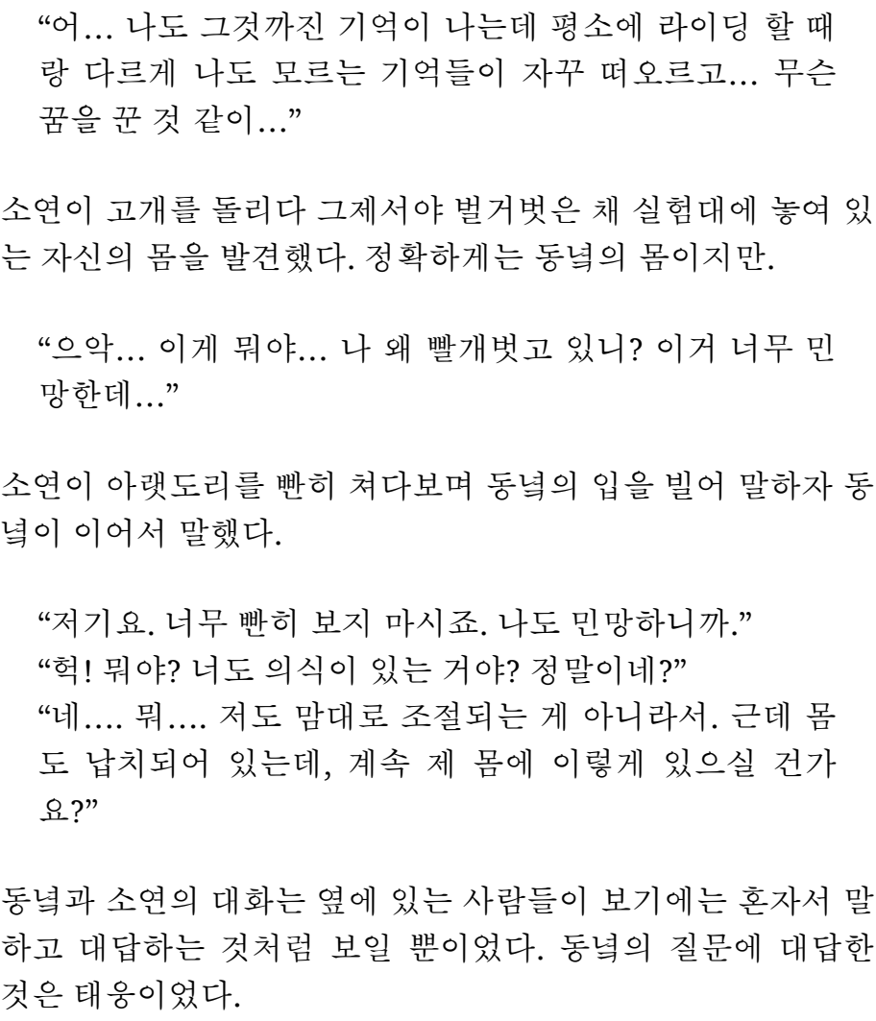
태웅의 말에 치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아... 전에 서바이벌 장에서 강 의원님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이상하다...?"

치수의 옆에서 모니터를 체크하던 준호가 끼어들었다.

"근데 소연 의식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동녘의 눈빛이 약간 달라졌다.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피던 동녘이 말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동녘의 몸에 들어간 소연이 말했다.



"어? 이게 뭐야? 태웅아! 치수? 나 라이딩 된 거 맞아?"

태웅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어!! 다행이다. 몸은 납치됐는데, 일단 의식은 얘한테 옮겨놨었잖아. 기억 안 나?"
"어... 나도 그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평소에 라이딩 할 때랑 다르게 나도 모르는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고... 무슨 꿈을 꾼 것 같이..."

소연이 고개를 돌리다 그제서야 벌거벗은 채 실험대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했다. 정확하게는 동녘의 몸이지만.

"으악... 이게 뭐야... 나 왜 빨개벗고 있니? 이거 너무 민망한데..."

소연이 아랫도리를 빤히 쳐다보며 동녘의 입을 빌어 말하자 동녘이 이어서 말했다.

"저기요. 너무 빤히 보지 마시죠. 나도 민망하니까."
"헉! 뭐야? 너도 의식이 있는 거야? 정말이네?"
"네.... 뭐.... 저도 맘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몸도 납치되어 있는데, 계속 제 몸에 이렇게 있으실 건가요?"

동녘과 소연의 대화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서 말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동녘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태웅이었다.

"어차피 72시간 이상 라이딩은 불가능해."
"그럼 얼른 다른 더미 클론에 의식만 옮겨 놓으면 되지 않아요?"
"원 몸으로 클론한 게 아니고, 지금 너의 몸에서 소연의 의식만 분리해서 다른 몸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해."
"그럼... 몸을 72시간 내에 못 찾으면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라이딩한 소연의 의식이 도미넌트 의식이 되기 때문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라이더의 의식이 죽어버리게 되지. 즉 동녘이, 너의 의식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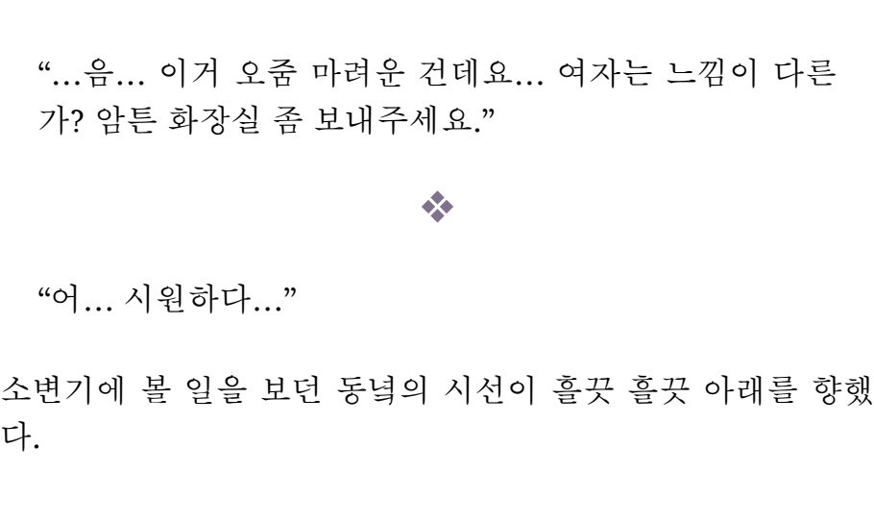
동녘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근데 지금은 제 의식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알 수 없어. 너의 의식이 죽을지 소연의 의식이 죽을지는...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라 알 수 없어."
"그럼 어떡해요? 나 얼른 집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밥도 해드리고, 덕현이네 할머니도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동녘의 말에 치수가 끼어들었다.

"우선 할머니랑 덕현이는 잘 모셔 보내드렸고. 너희 할아버지 신원은 그렇잖아도 우리가 물어보려 했어. 할아버지 주민번호는 기억해?"
"아뇨."
"역시. 멍청한 놈이라 모를 줄 알았어."

치수가 한심하단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태웅이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다음 클론 문제는...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소연이 몸부터 찾는데 주력해야 해. 너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동녘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리 질렀다.

"태웅아! 나 소연인데!!"

태웅의 시선이 동녘을 향했다.

"나 몸이 지금 너무 이상한데. 배가 너무 아프고, 뭔가 참을 수 없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좀 살펴봐줄래?"
"정말? 준호야! 체크 좀 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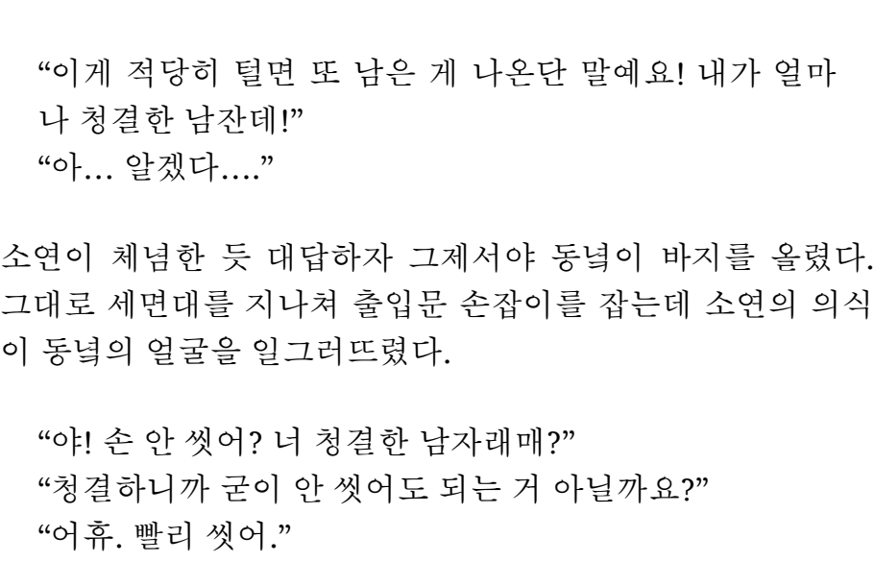
순간 동녘의 표정이 바뀌며 말했다.

"...음... 이거 오줌 마려운 건데요... 여자는 느낌이 다른가? 암튼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

"어... 시원하다..."

소변기에 볼 일을 보던 동녘의 시선이 흘끗 흘끗 아래를 향했다.



"아. 좀 그만 봐요! 남자 꺼 첨 봐요?"

동녘의 말에 동녘이 스스로 대답했다. 정확하게는 동녘의 안에 들어간 소연이지만.

"아... 진짜 오래도 싸네. 이제 그만 해."

소연이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동녘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아! 뭐하는 거예요! 바지에 다 묻잖아요. 털어야 해요."
"아...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하나... 아 좀 그만 털어!"

동녘은 소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요리조리, 탈탈 털어댔다.

"이게 적당히 털면 또 남은 게 나온단 말예요! 내가 얼마나 청결한 남잔데!"
"아... 알겠다...."

소연이 체념한 듯 대답하자 그제서야 동녘이 바지를 올렸다. 그대로 세면대를 지나쳐 출입문 손잡이를 잡는데 소연의 의식이 동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야! 손 안 씻어? 너 청결한 남자래매?"
"청결하니까 굳이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휴. 빨리 씻어."

동녘은 억지로 세면대를 향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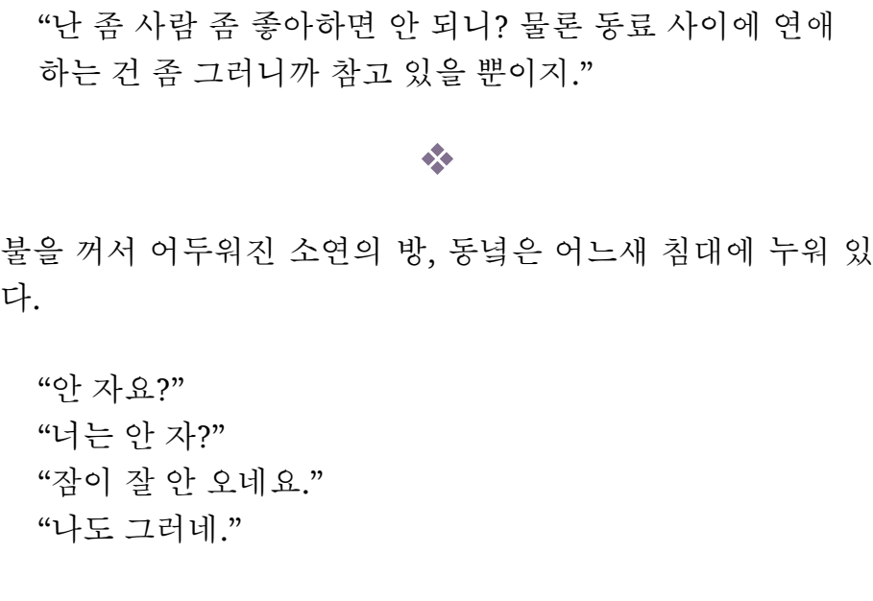
소연의 방에서 동녘이 소연의 옷장을 뒤진다. 옷장 안에는 브래지어, 팬티 등 여자 속옷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속옷을 하나 꺼내서 신기한 듯 요리조리 쳐다보자 소연의 동녘의 입을 통해 말한다.

"야! 그만 뒤져. 어차피 네 몸에 맞는 옷 따위 없어!"

똑똑 노크하는 소리. 동녘이 뛰어가 문을 연다. 문 앞에는 태웅이 옷가지를 들고 서 있다.

"맞는 옷이 없을 것 같아서. 내 옷이랑 좀 들고 왔어."
"아... 고마워, 태웅아. 내가 입어도 괜찮을까?"

태웅이 동녘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럼! 대신에 이 놈이 여기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지 않도록 조심해주고. 난 좀 불안하거든. 얼른 몸 찾자."
"알았어. 고마워."
"일단. 오늘은 푹 좀 쉬고."

태웅이 가볍게 인사하고 옷가지를 동녘에게 건네주고 떠나자, 소연은 동녘의 몸으로 태웅의 옷을 코에 갖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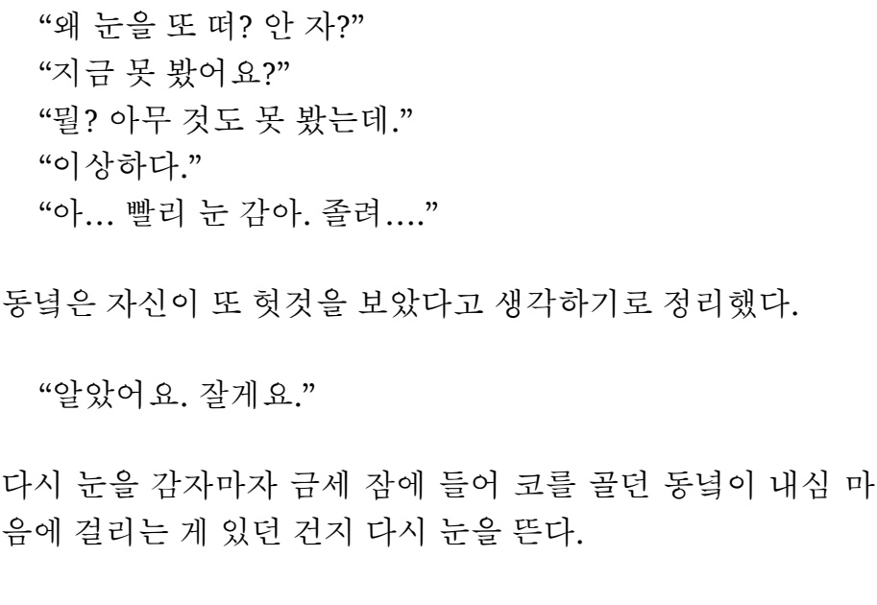
"아줌마. 태웅인가 저 친구 좋아하죠?"
"뭐야. 너, 근데 내 생각도 읽어지니? 나는 네 생각이 읽히진 않는데..."
"음... 뭐 딱히 생각이 읽히진 않는데... 지금 냄새 맡는 거만 봐도 그렇잖아요."
"난 좀 사람 좀 좋아하면 안 되니? 물론 동료 사이에 연애하는 건 좀 그러니까 참고 있을 뿐이지."

◆

불을 꺼서 어두워진 소연의 방, 동녘은 어느새 침대에 누워 있다.

"안 자요?"
"너는 안 자?"
"잠이 잘 안 오네요."
"나도 그러네."

동녘이 잠시 망설이다 소연에게 묻는다.



"근데 아까... 그 기억은 뭐에요? 혹시 소연 씨 클론이에요?"
"내가 무슨 클론이야. 부모님도 엄연히 살아 계시는구만. 근데 무슨 기억?"

소연이 기억하지 못하자 동녘은 괜히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음... 그래요? 그럼 아까는 진짜 꿈인가? 아까 못 느꼈어요?"
"나? 모르겠는데? 나 이제 졸려. 자자."

동녘이 눈을 감는 순간, 소연의 두개골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이미지가 동녘의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갔다.

"왜 눈을 또 떠? 안 자?"
"지금 못 봤어요?"
"뭘? 아무 것도 못 봤는데."
"이상하다."
"아... 빨리 눈 감아. 졸려...."

동녘은 자신이 또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기로 정리했다.

"알았어요. 잘게요."

다시 눈을 감자마자 금세 잠에 들어 코를 골던 동녘이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던 건지 다시 눈을 뜬다.

"소연 씨, 자요?"

벌써 잠에 든 듯 대답이 없자 동녘은 침대에 일어나 앉아 고개를 돌려 소연의 책상을 보았다. 소연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과 찍은 가족 사진 액자가 보였다. 처음 보는 얼굴들에 동녘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지만 그런 감정을 일일이 신경쓰기에 동녘은 너무 피곤했다.

"아... 몰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동녘은 괜히 소리내어 말하며 침대에 다시 드러 누웠다.

Continued to ep.07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